



교육의 정당도正道 찾아나선 선생님의
아주 특별한 수업

《간디학교의 행복 찾기》낸 고교교사 여태전

고등학교 교사 여태전 씨(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 사회과)는 보기 드문 '실천교사'다. '주입식 교육'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교사생활을 했으니 지금쯤이면 말 그대로 '편한' 교사생활을 할 법도 하지만 미련하게도(?) 주어진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지런히 '다른 교육'을 찾아다녔다. 2001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찾았던 경험들을 토대로 쓴 《간디학교의 행복 찾기》는 이 경험의 소산이자 객관적인 거리에서 '간디학교' 교육을 바라보고 쓴 일종의 현장보고서다.

여씨가 흔히 '대안학교'라 불리는 간디학교에서 '교육'을 체험하는 '학생'이 돼보기로 한 데는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교육'에 열정을 둔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질문들-"대안"은 '대안'인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대안'이라는 말인지, '교육'이라는 말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책상머리에서 그 개념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왜인지"

등-이었다.

"처음부터 글을 쓰고 책으로 내자고 학교를 찾은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간디교사연수원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간디학교에 드나들었고, 저 나름대로 보고서 형식으로 그곳의 교육들을 정리해 봤지요. 우연치 않게 그게 학위논문이 되었고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다가온 '간디학교'는 '진리 앞에서의 단순함, 노동하는 삶, 공동체'라는 간디의 사상을 중심에 두고 있다. 여 교사는 이런 교육-정규수업에 노작시간을 포함하고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을 하는 등-을 실천하는 간디학교의

교육과정들을 다양한 삽화로 소개하는데 각기 다른 교사들의 수업방식,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개성 강한 학생들의 이야기 등 열린 시선으로 학교의 다양성을 들여다본다.

"최대한 '연구자'의 자세로 간디학교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단편적 자료들을 통해 학교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혹은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잊은 채 편견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교사연수원의 예비교사가 생일을 맞은 날 간디학교의 양희규 박사와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까지 자료로 담아서 양 박사를 놀라게 한 일화도 있지요."

여 교사가 이처럼 열성적으로 간디학교를 바라보며 느낀 것은 이 학교 학생들이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교육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배우며 실천한다. "쌤! 맞는 걸 틀렸다고 했는데요" 혹은 "틀린 걸 맞다고 했는데요"라며 선생님의 실수를 지적하는 아이들은 언뜻 '악동'처럼 보이지만 시끌벅적 요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지킬 건 지키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거나 '식구총회'를 통해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칠 벌칙을 정하는 등 대학으로 가는 점수를 채점할 시간을 양심점수를 매기는 데 보낸다. 여 교사는 이런 삽화들을 내놓으며 일반교육이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하나 둘씩 우리 앞에 내놓는다.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부모, 제도 등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는 숙제이며 제안이다.

"저도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일반교육의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학교는 '풍금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정도로 기억되었을 테지요. 학생일 때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거든요. 학생은 학교에 무조건 순응하고 복종하면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작 교사가 되고 나서 그때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었고 어떤 선생님이 문제교사였는지,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의식이 싹텄지요. 거기서 느낀 것은 잘 만들어진 교육계획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삶과 교육을 일치시키려는 철학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 교사는 어쩔 수 없이 일반교육현장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적극적인 실천도 행하지 못하는 교사라며 자신을 낮춘다. 또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자녀를 일반학교로 보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모순'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일반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의지를 굽히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용기가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교 도서관'을 '대안교실'로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며, 학생들과 자신 사이에 놓인 벽을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한 점은 일반교사의 '대안학교적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그는 학교 도서관을 책을 읽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낮잠을 자거나 차를 마시는 교육공간 겸 생활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왔는데 학생들은 이런 도서관을 만들려 했던 여 교사를 '여쌤!', '아부지!', '우리의 대빵' 등의 정겨운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안학교든 일반학교든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얼마나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일반학교는 문제를 무조건 덮어두려고 애쓰기만 할 뿐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디학교는 문제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가능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지요. 일반학교가 간디학교를 통해 배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의 말처럼 간디학교는 이미 '정립된' 학교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학교다. '교육의 정도'를 찾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다. 학교는 생활 속의 배움을 실천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스스로 점검하려 애쓰고 있는데 "철학은 있되 방법론이 없다"는 등 여러 지적 앞에서 자성하면서 여전히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편견없이 대안교육을 바라보길 권한 여 교사의 책 《간디학교의 행복 찾기》와 그가 일궈놓은 '도서관'이 값진 이유는 '간디학교'가 아름다운 이유와 비슷하다. 기존의 교육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의 의지를 담은 '과정'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말이다. **추천**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우리교육 최승훈



《간디학교의 행복 찾기》

여태전 지음 | 우리교육 | 264쪽 | 값 13,000원